

지역공동체의 활동 사례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

유 수 상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복지재단

월평빌라 원장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농촌에 관련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농촌이 그만큼 희망에 목말라 있다는 말일 것이며 농촌이 희망과 그만큼 멀리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사는 거창도 최근 그 희망으로 웃고 또 울며 가슴을 쓸어야 했습니다. 바로 '승강기 관련 대학과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그것입니다. 늘 부족한 농촌에, 돈은 희망이 됩니다.

산업단지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돈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희망이고 농촌을 단숨에 변화시킬 대단한 것이 되어 열병처럼 사람들을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산업단지로 '희망'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농촌은 만나기 힘듭니다.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 우리 귀에 너무도 익숙한 구체적인 상징들이 농촌의 희망이 못된다면 우리는 농촌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농촌이 갖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성', '공동체문화의 회복'이야말로 농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상징, 열쇠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15년 전 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찾아 산골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며,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사업가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의 삶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농촌으로 오기 전 농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리산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

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묻고, 살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자와 자료를 찾아보면 농촌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땅 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면 참 바꾸고, 고치고 할 일 많은 땅 이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시작이 얼마나 왜곡 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12일 눈이 많이 오는데 거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눈이 많이 와서 더 이상 갈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마을을 2키로 앞두고 온 동네사람들이 이사 오는 저희 가정을 위해 신작로를 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도시에 서 따라온 많은 분들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가 참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희망이 있는 곳이다'라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며 바라보았던 농촌은 농업을 시작으로 교육, 문화, 복지, 경제, 인구,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아동...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열악하고 문제투성이라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손길이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보는 시각이었는데 첫날 동네 온 주민들이 보여준 한 편의 감동의 드라마를 보며, 누가 이 땅을 문제의 땅이라 규정하고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를 강요하고, 알아보자며 끝도 보이지 않는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농촌에서의 희망

그러나 이미 농촌에서의 삶을 희망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박하면서도 스스로의 철학을 지켜내며 농촌을 살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농촌의 온갖 문제들을 인식하면서도 애써 집착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문제들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농촌에서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작은 씨앗들을 키웠습니다.

전남 곡성의 죽곡 농민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김재형선생님의 '나는 우리 마을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합천에서 농사지으며 목회를 하던 정호진목사님의 '입학생 1명의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에서 농촌은 희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각이 바뀌면서 농촌은 계몽의 땅이거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곳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홍하게’ 하여 물질적 풍요와 경제 발전을 구호로 삼고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생명의 보고’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마을에서 보물을 찾다

황주석 선생님이 쓴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마을에서 대안 만들기’ 라는 제목이 나에게 한편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들어서려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활기에 차 있습니까? 죽은 듯 고요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략-

이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왜 이 마을 어귀에 서 있을까요? 그가 마을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이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아 특효약(대안)을 들고 구원의 명의名醫로 들어서는 길일까요? 아니면 이 마을로 세상을 구원할 어떤 보물(대안)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마을에서 발견한 보물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에는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뒷집 접시들이 오가며, 마을 방송은 함께 놀러가니 회의에 참석해 장소를 의논하자고 합니다. 봄이 되면 삼삼오오 이집 밭과 저 집 밭을 오가며 품앗이를 합니다. 일년내내 저희 집 앞 평상에는 하루가 멀다고 감자, 무, 배추 파, 상치, 산나물, 사과, 옥수수 등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버려두고 하필이면 ‘독거노인, 신체장애, 정신장애, 조손

세대,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 ' 라는 문제들에 집착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지 안타깝습니다.

'농촌은 여건이 어렵고 소외돼 있으니,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끌어다가 조직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큰 일 날 소리입니다. 그에 앞서 '농촌에서 유지되는 좋은 전통, 이웃 간 인정과 나눔, 마을의 공동체성을 살려 그것을 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회사업을 삶으로 풀어보자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헤치지 않도록 목회와 사회사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에 아이들과 교회모여 공부를 하니 부모들이 농산물을 가져다줍니다. 모여진 농산물로 홀로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를 부녀회 아주머니들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도시교회 자원을 통해 행하던 마을잔치를 주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묻고, 의논하고 주선했더니 마을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마을과 더불어 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고 이사 온지 3년 만에 씨족사회의 '제사 공동체'에 식사를 초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한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간에 행하던 일이 바탕이 되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밑반찬 지원으로 어떻게

장님의 축하 인사로 시작하고 ...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저씨 한 분은 검은 비닐에 사탕 한 봉지를 사 오셔서 쪽스러워 하며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은 직접 농사지은 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한 박스를 가져 오셨습니다. 방앗간 주인아저씨는 수고한 사람들 마시라며 사과즙 수십 팩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과주스 한 박스, 사탕 한 봉지, 사과 주스 수십 팩 ... 어쩌면 방앗간 주인아저씨 말씀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여'.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우리네 삶이었습니다. 떡 했다고 떡 한 덩이, 부침개 부쳤다고 한 접시, 김치 했다고 한 포기 ...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가야 오래가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공생하지 않으면 사람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이

상을 기해왔던 상호부조와 두레의 전통에 기반 한 농촌공동체가 시장지상주의의 반공동체성을 치유하는 가치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촌공동체’가 갖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를